

고국을 떠나, 와카야마에 온 것은 작년 9 월 말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멀리 떨어져있지도 않고, 시차도 차이가 없을 만큼 가까우니까, 계절과 기온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저는 가을과 겨울옷 만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입국한 그 날도 저는 가을옷이었습니다. 칸사이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로 와카야마 JR 역에 도착하여, 대학교에서 마중나와 주시는 분을 기다리면서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9 월말에도 와카야마는 아직 여름의 기온이 남아있었습니다.

10 월초, 대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 기숙사에 새로 들어온 유학생들은 선배유학생들의 안내로 학교에 갔습니다. 어릴 적 자전거를 탄 이후로,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였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타는 것이었기에 탈 수 있을지 어떨지 걱정이 앞섰습니다만, 다행히 예전의 감각이 남아 있어,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안도하는 것도 잠시, 선배유학생의 스피드에 맞추어 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달려도 달려도 학교가 보이지 않아, 선배유학생에게 “아직인가요?”라고 물어보니, “아직 반도 오지 않은걸”이라고 절망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와카야마 성 근처였습니다. 확실히 반도 가지 않은 곳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저어, 겨우 다리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학교는 아직이에요?” 선배는 다리 저편에 보이는 산을 가리킵니다. “저쪽 보여? 저쪽 산 위에 건물이 있지? 저곳이야!” 허걱!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 위의 건물은 마치 개미처럼 작게 보입니다. ‘벌써 이렇게 지쳤는데, 저곳까지 어떻게 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쉬고 난 뒤, 혼자서 갈 자신도 없었기에, 어떻게든 다른 유학생과 함께 힘을 내어,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만, 그때는 벌써 자전거를 타고 달린지 1 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급 경사의 언덕길이었습니다.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조금씩 말수가 줄어듭니다. 학교에 갔던 첫날은 산 전체에 나의 숨소리가 메아리쳐, 나의 숨소리만 들리는 듯 해집니다. 등산을 시작해 20 분만에 겨우 학교의 운동장이 보입니다.

그때, 나의 눈에 들어온 학교는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같아 보였습니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가는 길이 조금씩 익숙해졌을 때, 항상 지나다녔던 와카야마성의 수목에 빨강계 노랑계 단풍이든 것을 알았습니다. ‘와 이뿌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자전거를 세우고,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때까지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어, 주위의 경치에 전혀 눈을 돌리지 못한 저는, 조금씩 주위의 경치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거의 자전거로,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은 모두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들도 자전거입니다. 정장 차림으로, 스커트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자전거를 그다지 타지 않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아직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나를 추월해, 그 뒷모습들이 점점 멀어져갑니다.

와카야마성의 수목들도 학교의 언덕길에 있는 나무들도 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물들어 가는 것을 즐기고 있는 동안, 낙엽도 그 만큼 쌓여갑니다.

낙엽이 질 무렵, 성 옆의 길을 자전거로 달리는 것은 너무나 로맨틱 하였습니다. 등교할 때는 여유가 없었기에, 하룻길에 사진을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저는

하교길 성을 지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와서, 동네가 너무나 깨끗하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것에 감탄하였던 저였지만, 낙엽이 깨끗이 치워진 모습은 뭔가 허전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 처음엔 힘들었던 키타지마 다리도 불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아집니다.

그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져 갈 무렵, 굴 따기 이벤트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굴이라고 하면, 가장 남쪽 섬인 제주도에서나 재배하기 때문에, 대구 출신인 저는 굴 나무조차 본적이 없었기에, 굴 따기를 체험 할 수 있다고 들었을 때는, 꼭 참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다의 산에 계단식으로 펼쳐져 있는 굴밭을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딱 굴을 그 자리에서 먹었을 때는, 지금까지 먹어 본 적이 없을 정도의 단 맛에 감동했습니다. 와카야마는 굴로 유명하다고 들었던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굴 따기 이벤트에서 굴의 단 맛에 매료되어, 와카야마에서의 겨울은 굴과 함께 보냈습니다. 굴 산지답게, 와카야마의 겨울은 그다지 춥지는 않았습니다. 눈도 내리지 않았고, 두꺼운 외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키타지마 다리의 북풍은 조금 쌀쌀했지만, 많이 춥지는 않아, 자전거로 학교에 다니는 저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도 내리지 않고, 영하로 떨어지지도 않는 와카야마에서 제가 가장 추위를 느낀 곳은 방안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방안의 추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정기간은 힘이 들었습니다. 방안에서는 털슬리퍼가 필요했고, 잘 때에도 양말을 신은 채로 잠을 잤던 일, 지금은 추억으로 남았지만, 당시는 좀처럼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와카야마에서의 지낸 동안 감기도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방안과 밖의 온도가 그다지 다르지 않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지나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4 월이 되면 와카야마는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이곳저곳이 벚꽃으로 사랑스러운 빛깔이 됩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성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습니다. 벚꽃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몇 십분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성뿐만이 아니라,

와카야마 시내의 이곳저곳에서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와카우라와 키미이절과 동네 곳곳의 공원등. 밤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아간 야간의 성은 평소보다 몇 십배의 사람들로 붐빉니다. 마치 축제같습니다. 그 밤의 활기가 벚꽃을 더욱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본 와카야마성의 밤 벚꽃은 앞으로 저에게 벚꽃의 대표이미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벚꽃의 나무가 초록으로 바뀔 무렵, 카이난시에 있는 어느 산 계곡에 반딧불을 보러 갔습니다. 이름은 들어 본적이 있어도, 실제로 본적은 없었기에, 반딧불을 볼 수 있다고 들었을 때는, 반딧불이 정말 있어?라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반딧불이라는 것은 옛날옛날의 곤충으로, 동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카이난시의 시내에서 20~30 분 산길을 달려 도착한 계곡에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모두 반딧불이었던 것입니다. 자동차의 불빛을 끄니, 더욱 반짝반짝하며, 날아 다닙니다. 반딧불을 몰두하여 보고 있노라니, 시내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이러한 곳에서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와카야마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거구나, 한국에서도 반딧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동이 채 가지지 않은 7 월의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엄청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딘가에서 공사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시계를 들여다보니, 시계의 바늘은 4 시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소리일까라고 이상히 여기고 있노라니, 그것은 매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매미의 울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다니,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 소리가 너무나도 컸기에, 기숙사에서 나와 매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로 큰 매미들이 기숙사 주위의 나무에 한가득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매미를 한꺼번에 본 것도 , 이렇게 크기가 큰 매미를 본 것도 처음입니다. 아침 4 시 반경부터 오전 10 시 넘게까지, 울고 있는 매미의 소리에 익숙해지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지만, 매미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와카야마는 자연의 축복을 받은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와카야마에 왔을 때는 학교와 기숙사가 멀어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맑은 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도, 너무나도 센 바람에 앞으로 전진하기 힘든 날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동안 와카야마가 좋아졌습니다.

귀국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은, 와카야마의 이곳저곳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항상 반값할인도시락을 사기 위해 다녔던 멧사도, 사계절별로 모습을 바꾸었던 성도, 자전거로 건너기 힘들었던 키타지마 다리도, 학교의 언덕길도, 유학생의 마음의 안식처였던 국제교류센터도, 학교에서 바라보이는 시내의 모습들도...전부가 그리웁니다. 저의 머릿속에 이 모든 것들을 새겨 넣듯이 가만히 카메라의 셔터를 누릅니다. 사랑하는 와카야마를 떠나는 것이 이런 초록의 계절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